국토교통부 | 보도설명자료 |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: 배포 즉시 보도 가능 / 배포 : 2024. 6. 26.(수)

금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작년 대비 5%p 인상되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.

< 보도 내용 (연합뉴스, 문화일보, 세계일보 등, 6.26) >

◈ 경실련 “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반영 못해... 산출근거 공개해야”

1 KB 시세만을 단편적으로 분석하여 금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작년 대비 5%p 높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.

○ **부동산 공시가격에 활용되는 시세**는 **조사자**(감정평가사, 한국부동산원)가 **실거래가, 경매·담보 등 감정평가선례, 매물정보**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**공시가격 기준일**(매년 1월 1일)의 **대표성 있는 가격**으로 산정합니다.

* KB 시세는 부동산 시장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분석자료 중 하나이므로, 부동산 공시가격은 KB 시세 뿐만 아니라, 다양한 시장가치 분석자료를 참고하여 종합 판단

○ 따라서, **KB 시세만을 분석**하여 금년도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, **금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**은 **69%로 전년과 동일**합니다.

※ 공동주택의 평당 시세가 동일하다고 가정한 분석방법도 오류
(통상 면적당 시세는 주택면적이 넓어질수록 떨어짐)

2 그간 인위적으로 공시가격을 무리하게 인상시킴에 따라 국민의 복지 혜택은 줄어들고, 보유세 등 국민의 부담은 과도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하였습니다.

○ 이에, 정부는 **민생토론회**(3.19)을 계기로, **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추진**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.

3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.

○ 공시가격 산정에 활용한 **참고거래사례, 산정이유** 등에 관한 정보는 **온라인 홈페이지**(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)를 통해 **공개 중**('21년~)입니다.

○ 또한, **금년**부터는 이의신청을 제기한 부동산 소유자에게 공시가격의 **정량적인 산출근거**를 **구체적으로 제공**하고 있습니다.

담당 부서	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	책임자	과 장	이유리 (044-201-3422)
		담당자	사무관	김부병 (044-201-3423)
			사무관	최승필 (044-201-3426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